

研究論文

#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본 전통사회의 농민조직\* - 향도, 두레, 계를 중심으로 -

최우영\*\*

I. 사회자본의 역사성과 전통사회	V. 농민적 사회자본의 함의: 결론에 대
II. 전통사회의 지배구조와 농민조직의 변화	신하여
III. 농민조직의 구조와 성격	<참고문헌>
IV. 전통사회 농민적 사회자본의 기능	<국문요약>

## I. 사회자본의 역사성과 전통사회

‘사회자본(social capital)’ 개념이 각광을 받고 있다.1) 사회자본이란 사회적 연결망이나 여타 사회 집단 내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일정한 자산이나 능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관계’의 자본을 말한다.2) 지금까지 사회자본 연구는 대개 서구 학계의

\* 이 연구는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인문사회분야 지원(KRF-2003-074-BS0033)에 의해 수행되었다.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동양사회사상/역사사회학 전공(choigump@hanmail.net).

1) Lin, Nan,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Dasgupta, Partha and Ismail Serageldin(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2000);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편역),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그림 2003).

2) Lin, *ibid.*, p. 19; Portes, Alejandro,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1998), p. 6. 하지만 이러한 사회자본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개념적 정의는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예컨대 사회자본을 거시적 문화전통으로 이해하는 퍼트남은 사회자본을 연결망,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경험을 따라 우리 사회의 사회자본을 연역적으로 조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제도화 되어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sup>3)</sup> 하지만 이들 연구는 대부분 한국 사회자본의 문제를 현재 시점에서 무맥락적으로 일반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진단 평가 및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사회자본의 ‘역사성’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연결망, 규범, 신뢰는 윤리와 당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일상의 일부분이며, 역사·문화적 맥락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자본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역사 맥락적(historically contextualized)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sup>4)</sup>

상기한 역사성의 요청에 따라 본 연구는 전통사회인 조선에서 존재했던 주요 농민조직을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농민들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사회의 중추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층으로서 여러 가지 착취와 생존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구적 농민조직은 그나마 생존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장치가 아닐 수 없었다. 농민들은 이 조직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거나 교환하였고 그로부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

---

설명하는 반면, 콜만은 사회자본을 관계의 구조로부터 획득되는 다양한 결과적 효과로 설명한다. Putnam, Robert,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 6, No. 1(1995); Coleman, Jame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1988). 두 핵심이론가의 이 차이부터가 일찍이 현재의 개념적 혼란을 예고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아울러 사회자본 개념의 시대적 한정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주장 역시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전자는 사회자본이 자본인 이상 근대의 자본주의적 지평 안에서 그 개념이 의미 있다고 보는 반면, 후자는 사회자본이 관계성의 자본이라고 할 때 그러한 관계성은 자본주의적 맥락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난맥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으로 사회자본을 원인과 효과의 차원을 떠나 관계로부터 형성되는(혹은 관계를 형성하는) 연결망, 규범, 신뢰의 세 가지 요소로 단순화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개념 설정에는 사회자본의 탈자본주의적 확장성에 대한 필자의 기본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

- 3) 박희봉·김명환,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4호(2000); 김용학·송호근, 『한국노동조합의 연결망』(한국노동중앙연구원, 1998).
- 4) Maloney, William, Graham Smith & Gerry Stoker, “Social Capital and Urban Governance: Adding a More Contextualized ‘Top down’ Perspective,” *Political Studies*, Vol. 48, No. 4(2000), p. 222.

다. 또한 그것을 통해 상호 연대하거나 통합하였고 이 과정에서 삶의 규범과 의미를 부여받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농민조직은 그들의 삶이 요구한 절실한 연결망이자 강력한 규범 및 신뢰의 원천이기도 하였다. 농민조직이 비록 전통적 형식이긴 하지만 엄연히 당대의 사회자본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 농민들이 구축한 사회자본으로서의 연결망, 규범, 신뢰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 목적이다. 이는 사회자본 개념을 통해 본 농민조직(향도, 두레, 계)의 성격 및 기능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부연할 점은 이 글의 연구 대상이 기본적으로 실증이 용이하지 않은 사실(史實)이라는 점이다. 그나마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자료가 풍부한 지배층 연구가 아니라 일반 민중의 사회자본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 논의의 기초는 ‘탐색’적이고 ‘해석’적인 성격을 강하게 함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전문 역사학자가 아닌 사회학도로서 필자의 기본적 한계 역시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 점에서 본 연구가 갖고 있는 불가피한 한계와 이로 인한 시론적 성격을 먼저 짚어두기로 한다.

이 글은 다음의 순서로 짜여져 있다. 첫째는 배경적 논의로서 조선시대의 농민조직이 전체적인 지배구조의 변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배층과의 조응 및 갈등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거시적 시각에서 조망해본다. 두 번째는 개별 농민조직이 갖고 있던 일반적 성격과 구조를 개관해본 다음, 사회자본으로서의 농민조직이 각각 연결망, 규범, 신뢰의 측면에서 어떠한 특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고찰한다. 세 번째는 이들 농민조직이 사회자본으로서 어떠한 기능과 효과를 발휘하였는지 경제와 정치적 차원에 한정하여 규명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에 근거해 전통시대 농민적 사회자본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한 다음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간략히 따져봄으로써 전체적인 논의를 마무리한다.

## II. 전통사회의 지배구조와 농민조직의 변화

### 1. 조선 중기의 지배구조와 농민의 대응

조선이 예측가능성과 규칙성을 담보한 자체의 지배구조를 정착한 것은 선조기

를 즈음한 중기의 일이다. 훈구를 제치고 새로이 지배세력이 된 사람은 그들의 신진성에 걸맞는 새로운 지배의 프로그램을 제시해야만 했다. 그들 지배 프로그램의 핵심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축약해볼 수 있다.

첫째는 ‘분권과 자차’적 지배이다. 사람은 원래 고려 말 토성 이족 吏族 으로부터 발원하여 성공적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사족(士族)으로 전화된 발생론적 기원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 전 시기에 진행된 훈구파 주도의 중앙집권 기획은 그들의 향당(鄉黨)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향촌을 중앙에 복속하려는 중앙집권 기획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정치사회적 입지를 좁히는 심각한 위협이었고, 이는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사람의 동질성과 선명성을 강화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또한 사람의 향촌지향성은 성리학 이념이 지원하고 있었다. 원래 성리학은 중국 한대(漢代) 이래 귀족화된 관학 유교에 대한 일대 비판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성리학은 태생적으로 군주권을 강조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전제 체제를 지원하였던 관학 유교의 반명제(anti-thesis)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념적 본질은 군주권의 상대화를 포함하여 권력 분산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사람이 지향한 향촌의 자율성과 자치의 제도화는 바로 이 권력 분산의 공간적 실현이었다.<sup>5)</sup>

두 번째는 ‘교화’적 지배이다. 정통 성리학자인 사람의 지배는 일종의 ‘철인(哲人)지배’였다. 유교 지식인인 그들이 물리적 권력 행사를 통해 지배를 관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에 반하는 것이었다. 대신 그들이 내세우고 실천하고자 했던 정치형태는 문치(文治)였다. 문치의 논리와 결합해 있으면서 특별히 대민(對民)적 견지에서 강력히 요청되었던 실천 활동이 바로 교화였다. 교화는 성리학적 이상향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일종의 종교적 당위이기도 했지만, 대민적 차원에서 스스로의 군자연(君子然)함을 승인받는 중요한 관건이기도 했다. 따라서 교화는 사람의 존재를 합리화하려는 일환으로서 일정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여기에 사람의 계급이익이 관계되지 않을 수 없었

5) 물론 이 향촌의 분권성이 근본적으로 군주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틀테면 조선 중기에 노정된 향촌의 분권 및 자치 원리가 봉건제의 그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조선 중기의 중앙-향촌관계는 상호 인정 아래 견제와 타협을 동반한 조율적 분화 관계였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조혜인, 「조선향촌질서의 특징과 그 정착과정」, 『유교적 전통사회의 구조와 특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최우영, 「조선사회 지배구조의 기본 성격: 관료적 지배와 잠재된 갈등」, 『사회발전연구』, 8호(2002)를 참조할 것

고, 그 결과 억압적 측면 또한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교화적 지배의 기본 원칙만은 부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로 후기에 비해 조선 중기의 상황은 이 교화원칙에 상대적으로 잘 부합하였다.

이상의 지배원칙을 근거로 조선 중기의 지배구조는 향촌의 자율성을 인정한 위에 중앙과 향촌이 유기적으로 역할분화된 독특한 양상을 노정한다.<sup>6)</sup> 향촌 사람들은 한편으로 중앙과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교화에 의한 대민 지배를 주도하였다. 이 구조는 기능적으로 정치와 사회의 유기성을 높이고, 권력 및 지배의 독점을 견제하는 명시적 효과를 발휘하였다. 중앙-향촌, 관료-재야사림의 대류(circulation)구조가 권력독점이 야기할 수 있는 임의적 파행적 지배를 구조적으로 견제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배의 공공성 확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사림의 대민적 헤게모니에 주요하게 일조하였다.

상기의 지배구도가 가진 일정한 헤게모니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말해 그것은 사족 주도의 체계였고 농민이 주체가 된 순수 농민적 체계는 아니었다. 그러면 피지배층인 농민 주체의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향도(香徒)’ 조직과 그를 이은 공동노동조직 ‘두래’ 그리고 농민적 결사인 ‘계(契)’ 조직에 주목하게 된다. 사실 인간사회라면 어디나 마을의 형성과 더불어 고유한 관습이 형성되기 마련이고, 관습에 따라 마을의 유지를 위한 일정한 규약이나 조직이 없을 수 없다. 잘 알려진 사족 주도의 ‘향약’도 이 고유한 골격에 유교적 예속을 덧입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전래의 농민조직 역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농민조직은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대개 사족조직 밑에 하부구조로 존재해왔다.<sup>7)</sup> “일리(一里)를 통하여 대계(大契)를 만들어 상하민(上下民)이 모두 참여하고 농민들은 또 각기 그 마을에서 따로 소계(小契)를 만들어” 사족과 농민이 장구한 세월 공존하면서 향촌의 구조적 골격을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sup>8)</sup>

주목할 점은 전통적 농민조직과 사족조직의 관계이다. 무릇 지배 피지배 관계

6) 조혜인, 위의 논문

7) 이해준, 「조선시대 향도와 촌계류 촌락조직」, 『역사민속학』, 1집(1991); 김용덕, 「촌회와 향도」, 『역사민속학』, 2집(1992).

8) 김용덕, 위의 논문, 38~39쪽.

에서 긴장과 갈등, 차별과 불평등을 배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상대적 견지에서 조선 중기의 농민조직은 자치적 향촌질서의 틀 속에서 사족의 영향력에 포섭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전술한 바처럼 조선 중기의 자치적 향촌질서는 특정 세력의 독점적 지배나 임의적 지배를 일정하게 차단하였다. 일례로 사족 규약인 향규(향약)는 자신들을 하민과 구분 짓는 차별적 기능도 했지만 사족 내부의 상호 규제와 도덕적 과행을 견제하는 자기 제어 장치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것은 도덕적 자기규제를 통해 향촌 지배의 공공성을 담보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였고 일종의 ‘협의체적 명망가 지배 상황’을 연출하였다<sup>9)</sup> 이는 대민적 차원에서 헤게모니적 설득력을 가졌고, 농민들은 적극적 반발이나 투쟁보다는 이에 조용하는 양상이 우세했다. 이 점은 곧이어 살펴볼 조선 후기의 양상과 확연히 비교된다.

## 2. 조선 후기의 지배구조와 농민의 대응

중기의 분권적, 자치적 지배구조는 후기로 넘어가는 숙종기를 기점으로 중앙집권적이고 국가주도적인 형태로 전환된다. 이때부터 본격화되는 ‘면리제(面里制)’, ‘이정법(里定法)’,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 등은 기존의 자연촌적 질서를 제도화된 국가적 질서로 포섭하기 위한 행정적 인프라(infrastructure)의 구축작업이었다.<sup>10)</sup> 물론 조선 후기의 국가주의적 지배구조 재편을 단일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향촌의 자치 구조를 허물어뜨리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지배의 주도권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국가관료인 수령에게로 넘어갔고 결과적으로 국가 영역 내로 포섭되었다. 기존의 향촌 자치제도나 조직 역시 수령의 통제 하에 사실상의 반관(半官)조직으로 변화해갔다.

상기의 추이는 국가에 의한 형식적 합리성의 제고라는 면에서 근대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문제는 영·정조기 이후 소위 ‘벌열정치가 전개되면서 지배의 보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데 있다. 노론의 장기집권 등 정치권력의 독점화 현상이 과행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이에 중앙과 향촌의 유기적 구조는 사실상 와

9) 조혜인, 앞의 논문, 172~175쪽.

10) 한상권, 「조선시기 국가의 지방지배 연구현황」, 『역사와현실』, 18집(1995); 오영교, 『조선 후기 향촌지배정책 연구』(혜안, 2001).

해되었다. 나아가 중앙의 별열세력에 의해 향촌의 일방적 복속이 강요되면서 양자간에는 적대적 긴장과 단절이 구조화될 수밖에 없었다. 중앙과의 유기적 대류를 통해 스스로를 재생산하던 향촌 사족의 입장에서 단절은 중대한 위협임에 틀림없었다. 게다가 중앙의 국가 세력은 향촌 사족의 지배 권위를 약화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실제 그들의 전략은 강화된 수령권과 행정체계를 무기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 이 지형에서 향촌 사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방어를 위해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는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연 ‘혈연적 결집’이라는 원초적 수단으로 나타났다. 조선 후기에 뚜렷한 ‘혈연집단’의 부상은 상기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결과였다.<sup>11)</sup>

향촌 사족에 의한 혈연적 결집 추세는 전대의 헤게모니적 지배를 결정적으로 흔들어놓았다. 지배의 공공성은 혈연집단간 경쟁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파행은 중앙의 별열정치를 반영하듯 유력 혈족의 독점적 지배와 이에 도전하는 여타 혈족의 투쟁으로 현재화되었다.<sup>12)</sup> 여기에 신흥 ‘요호부민(饒戶富民) 층이 혈족 투쟁에 가세하면서 지배의 인구 압력은 보다 첨예화한다. 빈발하는 ‘향전(鄉戰)’은 이 첨예화된 경쟁의 정점이었다. 족적 결합을 매개로 한 신구향(新舊鄉)의 향촌 지배권 싸움은 결국 대민 차원에서 지금껏 견지해왔던 사족 헤게모니의 상실로 이어졌다. 자기규율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지배는 더 이상 교화와 협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족적 이익의 실현에 불과하였다.<sup>13)</sup> 사족들은 위태로워진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해 전략적 견지에서 상하합계(上下合契)를 강화하려 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농민들이 한층 명확하게 독자적 조직화의 움직임을 보인 것은 시대의 조건상 너무나 당연하였다.

종합해보건대 조선 후기의 향촌은 중기의 자치적 공동체 질서가 와해되고 혈연

11) 정진영, 「조선 후기 동성마을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 21: 조선후기의 향촌사회』(국사편찬위원회, 1991).

12) 이영훈, 「18, 19세기 대저리의 신분구성과 자치질서」, 『맛질의 농민들』(일조각, 2002), 247쪽

13) 일례로 18세기 이정법의 실시는 토지로 집중된 각종 조세와 부역 의무에 대한 동(洞)단위 공동납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구성원이 동질적이지 않은, 즉 반상(班常)이 섞여 사는 대부분의 촌락에서 하층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마련이었다. 정승모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변동과 농민조직」, 『역사민속학』, 1집(1991), 46쪽 이영훈, 위의 논문 247쪽 더구나 이는 혈연집단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선 후기의 상황에서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

집단을 매개로 한 주관적 이해가 경쟁적으로 추구되는 형국이었다. 형해화된 신분적 특권을 혈연적 결집으로 방어하려 한 구향과 마찬가지로, 신항들 역시 대안적 논리를 제시하기보다는 혈연 게임의 논리 속에 용해되어 갔다. 그 결과 당대의 향촌은 일종의 족적 세력화의 장(場)으로 전화하였다. 따라서 해계모니 지배의 틀이 붕괴된 가운데 국가와 양반 혈연집단으로부터 이중의 착취를 감내해야 했던 농민의 입장에서 자구적 농민조직의 필요성은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 파행적 방식으로 혈족 이익을 실현하려는 지배층에 대항하고 최소한의 생존을 방어해내기 위해 농민들은 조직화의 수준을 높여갔다. 그들 특유의 사회자본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조건 위에서 형성되고 변화해갔다.

### III. 농민조직의 구조와 성격

전통사회 농민조직의 연구는 애초에 여러 가지 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농민조직의 기원과 범주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먼저 ‘기원’의 문제는 이렇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자연발생적인 농민의 결속 현상은 실상 언제 어디서나 존재했었다. 따라서 농민조직의 정확한 기원과 원초 형태를 정의하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민중으로서 농민의 조직은 사료적 제한이 가뜩이나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두 번째 ‘범주’의 문제는 미분화되고 자기충족성이 강한 전통사회의 경우 특정 조직이 분명한 지배층 조직, 혹은 피지배층 조직으로 분화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오히려 사족과 농민조직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양자가 위계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주로 상하합계 형태로 유지된 향약(동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래의 글은 이러한 한계를 전제한 위에서 의도적으로 농민조직을 ‘이념형’적으로 유형화한 결과이다.

#### 1. 향도(香徒)

##### 1) 향도의 구조와 성격

향도는 전통적 농민조직의 원초 형태로서 많은 연구자들이 공히 주목하고 있는

바이다.14) 향도는 원래 기불(祈佛)단체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면서 향도는 오히려 촌락사회의 구조에 밀착되어 당대의 공동체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태진의 주장에 의하면 향도는 여말선초에 이르러 불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무속신앙 등과 연결된 채 촌락의 공동체 조직으로 명맥을 유지했다고 한다.15) 이 점에서 향도는 고려 때까지는 주로 신앙결사의 성격이 강했던데 비해, 조선에 들어와서는 촌락 단위의 공동체 조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요컨대 향도는 (종교적) 결사체의 성격과 그로부터 일정하게 성격 변화한 지역 기반 공동체의 성격을 동시에 가졌던 것으로 이해된다.16) 분석적 견지에서 향도는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17)

- ① 불교신앙결사의 전통을 이은 순수신앙조직의 변형된 형태
- ② 자연촌 중심의 공동체적 유제를 계승한 음사(陰祀)·사신(祀神) 향도계
- ③ 위와 비슷하면서도 상호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향도계
- ④ 일정한 정착지없이 공역(公役)과 잡무에 동원 및 사역되는 걸인, 유한배(游閑輩)조직

우선 ① 유형은 고려의 신앙결사 성격을 온존한 채 주로 매향의식(埋香儀式) 등 불교의례를 중심으로 조직된 경우이다. 이 향도는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한 석비(石碑) 건립, 염불수행이나 승려의 지원, 순교자에 대한 추모 행사 거행, 조상(造像), 조종(造鐘), 매향 및 매향비 건립 등을 조직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18) 이는 기원(祈願)이나 보시(布施) 등 불교 신도의 신앙 활동을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결사체의 성격을 띠며, 그런 점에서 고려 이래 향도의 시원적 특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이 유형이다. 하지만 이 향도는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가 확산되면서 점차

14) 향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로는 다음의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김필동, 「삼국-고려시대의 향도와 계의 기원」, 『한국 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문학과지성사, 1986); 이해준, 앞의 논문; 정승모, 앞의 논문; 이태진,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운동」, 『한국사회사연구』(지식산업사, 1994).

15) 이태진, 위의 논문, 127쪽

16) 정승모, 앞의 논문, 48쪽

17) 이러한 향도의 유형화와 주요 특징은 이해준의 논의에 주로 의존하였음을 밝힌다.

18) 김필동, 앞의 논문, 86쪽

퇴조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의 유형은 불교 신앙결사가 전통적 민간신앙을 매개로 공동체적 음사(陰祀) 및 사신(祀神) 조직으로 변형된 사례이다. 고려 이래의 불교가 영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반면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는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천신(山川神)에 대한 민간 신앙이 조직화의 계기가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음사류 향도조직은 민중적 차원에서 공동체 생활문화의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직된 불교 신앙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연적(地緣的) 공동체성이 부각된다.<sup>19)</sup> 이 유형을 매개로 산천신에 대한 제의는 농경사회의 민간신앙으로 오랫동안 존속될 수 있었다. 그 유제를 우리는 조선 후기 촌계류 조직이나 현재도 계승되고 있는 동제(洞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② 유형이 주로 신앙을 매개로 한 조직이라면 ③의 유형은 이와 달리 일상적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이른바 ‘동린계(洞隣契)’적 성격의 향도이다. 이 향도의 경우 대부분 정례적인 의례를 공동으로 준수하였고 향촌 원로들의 합좌 하에 마을의 남녀노소, 천민들이 제한없이 모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0)</sup> 따라서 상대적으로 선택적이고 자원적 결사의 성격이 강했던 위 유형들에 비해 일상 공동체의 성격이 보다 부각되는 것이 이 유형이다. 조선 전기에 향도라는 말이 공동체의 대명사로 쓰이다시피 했고 마을의 공동 행사나 제반 행위가 거의 대부분 이 조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진단<sup>21)</sup>은 이 유형의 향도에 가장 잘 부합한다. 여기서 상호부조는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김매기, 잔치준비, 손님 접대 등 마을 공동체의 일상적 필요에 폭넓게 부응하였다.<sup>22)</sup> 따라서 이 향도 유형은 촌락 구성원간의 공동체적 교류를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 사족 중심 조작(향약, 동계)과 습합을 거듭하면서 두레나 촌계류 조직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이 유형의 향도라고 할 수 있다.

④의 유형은 앞선 사례들과는 달리 유한 결인이나 상두꾼의 조직이라는 가장 특정화된 결사형태를 띤다. 이 조직은 주로 지연 기반이 약한 하층민 청장년 남자

19) 이태진, 앞의 논문, 131~132쪽.

20) 이해준, 앞의 논문, 20쪽.

21) 이태진, 「17, 8세기 향도조직의 분화와 두레 발생」, 『진단학보』 67 권(1989), 26 쪽.

22) 이해준, 앞의 논문, 20쪽.

들로 구성되었다.<sup>23)</sup> 그들은 대개 시정 상공인이거나 각 기관의 노비 혹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천민들이었다. 그들은 주로 길닦는 부역에 동원되기도 하고, 군졸로 차출되거나 상두꾼으로서 상여를 매어주고 샅을 받기도 하였다. 또 군읍이나 타관으로 전전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불규칙적으로 구역이나 사역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들 향도조직은 기성 질서의 주변이나 외곽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자연스럽게 촌락 기반을 상실한 유민들이 여기에 흡수될 여지도 많았다. 지배층의 입장에서 이 향도조직은 아무래도 경원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sup>24)</sup>

이상의 유형화를 비교, 종합해볼 때, ①과 ④는 특정한 종교(불교)나 특정한 신분(유랑 천민)을 매개로 한 결사체의 성격이 강하고, ②와 ③은 향촌의 지연을 매개로 한 자연발생적 공동체의 성격이 보다 부각된다. 주목할 사항은 ①과 ④가 동일한 결사체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에 분명한 내용적 간극이 있지만, ②와 ③은 실제 다방면에 중첩되어 있어 사실상 내용이 상호침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불교 결사로서의 향도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쇠퇴해버렸고, 결인이나 상두꾼 조직으로서의 향도 역시 특정성이 강한 주변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 향도는 ②, ③의 혼합형태가 전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향도의 조직은 리(里)나 촌(村) 등 말단 자연촌락을 단위로 하여 7~9인에서 100여 인 또는 40~50호 정도의 상천민(常賤民)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들을 주축으로 한 향도는 공동 노역, 마을 잡역, 민간신앙이 가미된 마을 제사, 관혼상장의 공유와 그 부조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향도는 관습적이긴 하나 정기적인 자체 모임이나 행사를 통해 마을 내 대소사를 논하는 어느 정도의 규칙성과 조직성도 갖추고 있었다.<sup>25)</sup> 향도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보다 체계적으로 분화된 조선 후기의 농민조직이 향도의 직·간접적 영향 아래 분기되어 나온 것으로 이해되는 까닭이다. 가령 조선 후기의 공동노동조직인 ‘두레’와 여러 목적 지향으로 분화된 ‘계’가 그런 경우이다.

이 점에서 향도의 이중적 성격을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기한 대로 향도는 적어도 조선시기에 전형적인 공동체 농민조직으로 기능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23) 정승모, 앞의 논문, 48~49쪽.

24) 이해준, 앞의 논문, 23쪽.

25) 위의 논문, 27~28쪽.

하지만 거기에 결사체로서의 성격이 주변적으로 잠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애초의 기불적 신앙결사로 출발했던 데다 비록 부분적이긴 했지만 주변집단 결사체로 존재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사체의 잠재성이 일정한 조건 변화에 따라 현재화할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았다. 실제 그 가능성은 조선 후기의 두레의 경우에 부분적으로, 그리고 계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현실화한다.

## 2) 사회자본으로서의 향도

퍼트남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연결망, 규범, 신뢰를 핵심 요소로 한다.<sup>26)</sup> 연결망, 규범, 신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호 되먹임(feed-back)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즉 연결망을 매개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간에는 규범이 형성되고 신뢰가 공유된다. 역으로 규범의 공유나 신뢰의 교환을 통해 연결망이 보다 강화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 각각의 구체적 내용이나 상호간 결합형태가 특정한 맥락에 따라 다기(多岐)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자본의 가변적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분석적 차원에서 사회자본의 성격을 갈라보는 시도들이 잇달았다. 대표적으로 브릭스는 사회자본을 집단 내부의 성원을 묶어주는 ‘결속적(bonding)’ 측면과 집단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집단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교량적(bridging)’ 측면으로 나누었다.<sup>27)</sup> 크리쉬나는 사회자본을 내용 중심의 ‘관계적(relational)’ 측면과 형식 중심의 ‘제도적(institutional)’ 측면으로 구분해 보았다.<sup>28)</sup> 또한 업호프는 사회자본을 ‘구조적(structural)’ 측면과 ‘인지적(cognitive)’ 측면으로 구분하였다.<sup>29)</sup> 특히 업호프의 구분에서 구조적 측면이 연결망을 포함한 사회조직의 ‘형태’에 초점이 있다면, 인지적 측면은 사람들을 협동하게 하는 문화나 이데올로기 또는 규범, 가치, 신념 등에 의해 강화되는 ‘정신

26) Putnam, *ibid.*, p. 67.

27) Briggs, Xavier, “Doing Democracy Up Close: Culture, Power and Communication in Community Building,”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Vol. 18(1998).

28) Krishna, Anirudh, “Creating and Harnessing Social Capital?,”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ldin(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2000).

29) Uphoff, Norman,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Learning from the Analysis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ldin(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2000).

적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구분을 통해 구체적 맥락 위에서 노정한 특정 사회자본의 성격을 이해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향도조직의 연결망 규범 신뢰가 어떠한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개관한 다음, 상기의 분석적 구분을 통해 향도조직의 성격을 일반화해보기로 하자.

우선 향도의 연결망을 보자. 앞서 대표성을 띤다고 본 ② ③ 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향도의 연결망은 최소 단위 자연촌을 배경으로 한 자연발생적 일상적 연결망이다. 전형적인 향도는 의지에 상관없이 공동체적 일상 속에서 촌민 모두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자연촌에서 나고 생활하는 것이 사실상 향도 연결망에 참여하는 것과 크게 구분되지 않았다. 연결망의 규모는 자연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100여인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 간의 관계 역시 극히 일상적인 면접적 성격을 넘어서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향도의 연결망을 일상성과 정의성에 토대한 비공식적 연계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연결망의 결절점(nodal point)에는 소위 '향도지화(香徒之會)'라는 의사결정과 조정의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sup>30)</sup> 이 점에서 어느 정도의 공식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체적인 견지에서 향도 연결망은 자연발생적 향촌의 조건을 쫓아 상대적인 비공식성과 비제도성이 두드러진다. 이는 후기의 농민조직과 비교할 때 보다 확연하다.

향도의 규범적 원천은 민간신앙과 혼용된 전래의 예속이나 관습이었다. 향도가 번성했던 조선 전중기는 유교적 질서, 특히 사족 중심의 유교적 체계가 미정착된 시기였다. 따라서 전래 예속과 관습의 규범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향도를 지배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향도가 흥했던 시기에 향촌의 분화 수준은 후기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고려할 때 향도 규범은 뒤르케임의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에 비견될만한 것이었다.<sup>31)</sup> 집합의식적 규범을 통해 향도조직은 특정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 구성원들의 삶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였고, 이로써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물론 여기서 동제 산신제 등 민간신앙 의례는 구성원의 공동체성을 주기적으로 환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향도

30) 김용덕, 앞의 논문, 34쪽

31) Durkheim, Emile,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ranslated by George Simpson (New York: The Free Press, 1933).

가 내장한 기계적 결속의 규범은 조직 내 개별적 특수이익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였고, 제어된 개별 이익은 평균화된 공동체의 성원됨이라는 집합적 가치로서 보상되었다. 결국 향도조직의 규범 효과는 ‘도구적(instrumental)’ 동기를 최소화하고 ‘완성적(consummatory)’ 동기를 극대화하는데 있었다.<sup>32)</sup>

향도조직의 신뢰는 상기한 공동체적 연결망과 집합의식적 규범을 반영한다. 향도 내부의 신뢰는 자연적 공동체 생활과 관습적 규범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비조건적 신뢰’로 유형화할 수 있다. 특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부합함을 전제로 조건적으로 형성된 신뢰가 아니라 오랜 기간 일상생활을 공유함으로써 형성된 전인격적 신뢰이다. 물론 향도의 공동체적 신뢰 역시 일상의 과정에서 배반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집합의식적 규제가 이를 징치함으로써 조직의 신뢰는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개별 이익의 고려에서 발생한 신뢰의 배반은 향도조직 내에서 나쁜 평판이나 경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자기충족적(self-sufficient) 공동체인 향도의 성격상 치명적인 위협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향도의 신뢰는 한편으로 전인격적 교류와 공동체 생활을 지향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 집합의식의 제재를 회피하려 함으로써 보다 강화될 수 있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체감에 기반한 신뢰이자 동질적 정서에 뿌리를 둔 비제도적 신뢰였다. 주커의 구분을 따라 신뢰의 형성근거를 ‘과정(process-based)’, ‘귀속성(characteristic-based)’, ‘제도(institutional-based)’로 대별해보았을 때,<sup>33)</sup> 향도조직의 신뢰는 귀속성 기반 신뢰에 가장 근접하였다.

이제 앞서의 분석적 구분을 향도에 적용해보면, 그것은 주로 ‘교량적 측면보다는 ‘결속적’ 측면이, ‘제도적’ 측면보다는 ‘관계적’ 측면이, ‘구조적 측면보다는 ‘인지적’ 측면이 뚜렷한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전인격적 교류와 통합, 정서적

32) Portes, *ibid.*

33) Zucker, Lynne,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1986), p. 53.

34) 이 진단이 곧 향도에서 전자의 성격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미발달한 조선 전기 상황에서 향도는 자연촌과 자연촌을 잇는 교량적 사회자본의 역할도 없지 않아 수행했을 것이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자연촌의 조건에서 가령 매장과 같은 대규모의 집단적 행사는 개별 자연촌 단위에서는 독자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승모 앞의 논문, 48쪽. 이 경우 향도는 이웃 향도조직과 연결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했고 그것은 집단행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사회자본의 역할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측면이 보다 중심적이고

일치, 개별 이익보다는 평균화된 공동체성의 확보 등은 각각 후자의 측면과 친화력이 크다. 물론 이 성향들은 자기충족적 자연공동체라는 자연촌의 구조적 조건과 긴밀히 연계돼 있었다. 그러면 향도의 구성원들은 ‘이익’이라는 동기로부터 자유로웠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오히려 향도조직은 그러한 이익의 욕구에 일정하게 부합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논점은 문제의 이익이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이라는 점에 있다. 즉 개별 이익의 가치를 적극 인정한 위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구되는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전제한 위에서 일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소극적 의미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삶을 단순재생산하는 범위를 크게 상회하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당대의 조건에서 그것이 마냥 소극적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존과 직결된 절실한 이익이었다. 향도의 상호부조 기능이 정확히 여기에 부합해 있었다.

## 2. 두레

### 1) 두레의 구조와 성격

두레는 향도의 성격을 직·간접적으로 이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농민조직이다. 조선 후기 사족 조직인 동계가 2~3개의 자연촌을 아울렀던데 비해 두레는 대개 하나의 자연촌을 단위로 한 공동체조직이었다. 물론 앞서 본 향도의 유형 가운데 신앙결사 조직이나 천민 유랑민 조직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도와 두레를 직접적으로 연결짓는데 회의적인 견해도 없지 않다.<sup>35)</sup> 하지만 주변적 향도조직을 예외로 한다면 상호부조 중심의 향도조직과 두레를 이어보는 일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일례로 이태진은 두레를 향도조직의 발전적 변신으로 이해한다. 요컨대 향도의 상호부조 기능 가운데 특별히 공동노동 기능을 전문화시킨 조직이 두레였다.<sup>36)</sup> 향도조직이 사실상 자연촌 자체와 겹쳐져 있었다면, 두레조직은 자연촌을

---

우월했는가 하는 점이다.

35) 정승모, 위의 논문

36) 향도에 부분적으로 내포되어 있던 공동노동조직의 기능이 두레에 물려짐에 따라 향도에는 상장(喪葬)의 기능만 남아 결과적으로 공동체적 질서의 대표성을 크게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태진, 앞의 논문(1989), 25 쪽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다.

두레를 공동노동조직으로 이해할 때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두레 이전에는 그러한 공동노동조직이 없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일반화된 의미에서 농민의 공동노동조직은 두레 이전에도 없지 않았다.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조선 전중기에도 여러 가지 촌락공동체적 경영이 시도되었고,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공동노동의 조직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양법 보급 이전에, 특히 발농사지역을 중심으로 ‘소겨리’와 ‘들계’ 등이 존재하였다.<sup>37)</sup> 앞서 본 향도도 부분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짐작된다.<sup>38)</sup> 하지만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로서 두레의 출현은 농사기술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생산력 발전의 결과였다. 즉 조선 후기 들어 논농사 지역에서 이양법이 발달한 결과 논농사에 김매기 작업 등 노동력의 집중화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공동노동의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면서 여기에 부합하려는 필요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두레였다.<sup>39)</sup>

두레조직이 가동되었던 조선 후기 자연촌은 향도가 지배적이었던 전·중기의 조건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후기의 자연촌은 전기에 비해 인구나 토지면에서 규모가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생산력 발전에 힘입어 독자적인 조직화나 자기충족성의 수준이 보다 강화되었다.<sup>40)</sup> 이는 두레가 향도나 기타 선대의 농민조직에 비해 규모나 체계성 면에서 진일보한 조직일 수 있는 기본 배경이었다. 두레는 높아진

37) 소겨리는 한 마을 내에서 소를 가진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 5호 정도의 규모로 겨리(絀)를 이루어 각 호에서 낸 5-6명의 인력이 보잡이, 재군, 씨불이군, 자기군 등의 일을 서로 분담하여 공동으로 노동하였으며, 특히 이웃 및 친척끼리 겨리를 맺는 경향이 강했다고 한다. 이에 비해 들계는 밭의 김매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서 자연촌 자체가 단위가 되거나 혹은 5-15호를 단위로 하여 공동 노동을 수행했다고 한다. 이태진, 앞의 논문(1994), 14-15 쪽

38) 이태진은 20세기에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발견되는 ‘소겨리’, ‘들계’, ‘황무’와 같은 공동노동조직이 이미 조선 전기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한다. 그럴 경우 이 공동노동조직과 향도의 관계가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그는 향도 모임이 바로 이들 공동노동조직이거나 혹은 그 테두리 속에서 몇 개가 조직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태진, 앞의 논문(1989), 16-17 쪽

39) 대표적으로 신용하, 「두레 공동체와 농약의 사회사」, 신용하(편), 『공동체이론』(문학과지성사, 1994), 216쪽; 주장현, 「조선후기 변혁운동과 민중조직」, 『역사비평』, 2호(1988), 190 쪽; 정승모, 앞의 논문, 50쪽; 이태진, 앞의 논문(1989), 21 쪽; 김인걸, 「조선후기 촌락조직의 변모와 1862년 농민항쟁의 조직기반」, 『진단학보』, 67집(1989), 51 쪽 참조할 것

40) 주장현, 「두레의 조직적 성격과 운영방식」, 『역사민속학』, 5집(1996), 108 쪽

생산력에 조응하려는 갱신된 농민조직이었던 셈이다.

조선 후기의 ‘두레는 성격 면에서 통상 향도와 마찬가지로의 공동체적 농민조직으로 인식된다.<sup>41)</sup> 하지만 두레는 기본적 공동체성에도 불구하고 향도에 비해 훨씬 특정화된 목적을 지향하고 있었고, 구성원 역시 ‘수전노동’이라는 특화된 목적에 걸맞게 청장년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점이 두레의 특이한 양상이었다. 물론 여성이나 노인, 어린아이와 같은 기타 촌민들 역시 예컨대 밥을 조달하는 등 부수적인 일을 맡음으로써 일종의 역할분담체계를 구성하고 있기는 했다.<sup>42)</sup>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변적이었고 두레의 본질은 수전농사를 축으로 한 청장년 남성들의 공동노동에 있었다. 이는 일상의 생활 전반에 종합적으로 관여하였고 성원자격 역시 선별적이지 않았던 향도와 비교할 때 명백히 구분되는 두레의 특성이자. 이에 필자는 두레가 기본적 공동체성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결사체로의 전화 가능성을 잠재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조선 후기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계가 특화된 목적을 전제한 의도적 결사체라고 할 때, 두레와 계의 거리가 마냥 멀어 보이지만은 않는다. 두레의 한자 표기 중에 ‘농궈(農耒)’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 것은 이 점과 관련하여 시사적이다.<sup>43)</sup>

다음은 두레의 조직을 일별해보자. 일단 두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마을 규모가 필요하였다. 대개 최소 10명 이상, 평균 20~30명의 두레꾼이 나올 수 있는 마을이어야 했다. 물론 이에 미치지 못할 때 이웃 마을과 합하여 두레를 구성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자연촌의 발달이 진전된 조선 후기의 경우 대개 자연촌을 단위로 독자적인 두레조직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마을에 둘 이상의 두레조직이 공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sup>44)</sup> 두레의 성립은 ① 1개 자연촌이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② 복수의 자연촌을 묶어서 구성하는 경우, ③ 1개 자연촌 내에서 몇 개로 나누어 구성하는 경우로 대별해볼 수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아무래도 ①의 경우였다.

두레조직은 일반적으로 책임자(좌상, 행수, 황수) 1인, 운영담당자(대방, 도갑

41) 신용하, 앞의 논문, 212쪽

42) 주강현, 앞의 논문(1996), 115쪽

43) 이태진, 앞의 논문(1989), 27쪽

44) 이영훈, 앞의 논문, 270쪽

2~3인, 재무담당자(유사, 서기) 1인을 정점으로 했고, 작업의 모범이 될 만한 건장한 장정을 수총각으로 세우고 방목감(放牧監)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sup>45)</sup> 또한 일정 나이에 이른 장정이 두레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먹다듬이’, ‘바구라’, 혹은 술을 내는 ‘진서탁’ 등 통과의례를 거쳐야 했으며, 두레조직을 상징하는 두레기(農旗)와 다양한 농악기까지 보유하였다.<sup>46)</sup> 통과의례의 제도화와 농기 및 농악기의 보유는 두레조직이 이전의 조직과는 달리 상당한 체계성을 갖추고 있었음을 엿보게 한다. 동시에 두레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원의 여유 위에서 성립하였음을 시사해준다. 이는 두레가 사족 조직은 물론이요 동제(洞祭)와 같은 향도 전통의 기존 농민조직과도 구분되는 주요한 배경이기도 했다. 두레는 일상적, 종합적 성격이 강했던 기존의 농민조직에서 분화되어 특정한 목적 수행에 걸맞게 체계적으로 조직된 조선 후기 농민적 삶의 주요 제도요 형식이었다.

## 2) 사회자본으로서의 두레

두레조직은 앞서 본 향도의 성격과 뒤이어 볼 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내장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두레가 기본적으로 공동체 조직이면서도 향도와 비교할 때 목적이 특정화되어 있고 참여 성원 역시 성인 남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두레는 적어도 목적과 구성 면에서 일상적, 자연발생적 성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다. 두레가 특정의 목적을 겨냥한 결사체로의 전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는 해석도 여기에 터한 것이다. 두레의 중첩적 성격은 사회자본의 견지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두레 연결망은 향도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근린성에 기반한 면접적 관계로부터 성립하였다. 자연촌이 단위가 됨을 고려할 때 두레 연결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개인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이로써 공동노동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었다. 두레 연결망의 성격이 공동체적이라 함은 애초에 두레 연결망의 참여가 마을 내 노동력을 가진 장정 모두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부세의 공동납이 보편화되는 조선 후기 상황에서 마을 전체의 농사를 위해 장정 모두가 동원되는 마당에 개인적으로 불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고, 공동체 규범

45) 정승모, 앞의 논문, 50쪽

46) 신용하, 앞의 논문, 222~230쪽 이태진, 앞의 논문(1989), 23쪽

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노동력 있는 장정이라면 두레의 참여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었다. 이 외에도 과부, 노인, 환자집 같이 노동력이 없는 경우에 두레조직이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관행은 두레의 연결망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에 터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두레가 이후 화폐경제가 확산되면서 공동체적 연결망의 성격을 어느 정도 희석시켜 갔다는 점이다. 두레조직은 마을 내 모든 장정의 강제적 참여에서 점차 1호당 1장정의 참여로 바뀌어갔다.<sup>47)</sup> 이는 두레 연결망이 마을 단위의 공동체적 성격보다는 개별 가호를 단위로 한 계약적 성격으로 전화되어갔음을 반증한다. 결국 두레 연결망은 애초에 자연적 면접관계로부터 성립하고 거기에 강하게 의존했지만, 점차 가족 단위의 계약적, 결사적 성격도 한편에서 확대해 갔다고 볼 수 있다.

두레 규범의 성격은 일단 향도와 마찬가지로 ‘집합의식’ 개념으로 포섭된다. 두레 규범은 기본적으로 자연촌의 면접적 관계를 토대로 공동체적 결속과 규제를 기계적 차원에서 수행하였다. 하지만 엄밀한 견지에서 볼 때 두레 규범의 효과는 두레가 가지는 한정성, 즉 수전노동 조직이라는 분명한 목적에 비추어 향도 규범에 비해 특정화된 면이 없지 않았다. 물론 두레가 자연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탓에 반드시 그 규범적 효과가 노동이라는 측면에 국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sup>48)</sup> 그렇지만 두레조직이 자연촌 공동체 자체가 아니라 그 부분집합이었음을 고려할 때, 두레 규범이 곧 공동체 일반의 규범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예컨대 노동과정에서 통일성과 조직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난히 기강, 규율, 위계를 강조한 것은 두레 규범의 남다른 면모였다.

조선 후기라는 시기를 감안하면 두레 규범에는 종래의 민간 예속에다 확산된 유교 규범이 습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두레의 전성기가 조선 후기임을 고려하면 이 때는 유교식 공동체 규범이 하민에게까지 상당 부분 전파되었을 시기이다. 물론 유교 규범에는 하민 규제의 속성이 엄존해 있었고, 두레는 지배층과 독립된 자체의 농민조직이었기 때문에 유교 규범이 곧 두레의 규범을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

47) 신용하, 위의 논문, 214 쪽

48) 예컨대 두레의 우두머리인 좌상(座上)은 두레에서 잘못된 사람 뿐 아니라 평상시 마을에 폐약을 끼친 사람까지도 징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젊은이가 어른에게 불경하는 경우에 좌상은 두레 농사 지을 때를 이용하여 그 사람을 불러 회유하거나 심지어 매를 드는 경우도 있었다. 주강현 앞의 논문(1996), 125 쪽

렵다. 하지만 공동체성과 위계를 강조하는 두레의 규범에 그것이 원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데올로기적인 신분차별 기능을 제외한다면 유교는 공동체성을 지지하는 강력한 논리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교 윤리가 확산되는 시기로 보아, 또 공동체라는 조직의 성격으로 보아 두레가 유교의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 영향을 향도와 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된다. 향도는 유교의 정착 이전에 번성하였고, 계는 이익에 민감한 자발적 결사체에 가깝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질서원리인 유교와 덜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이상 두레의 규범을 개관해보았거니와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향도와 마찬가지로 ‘도구적’ 동기보다는 ‘완성적’ 동기가 우세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거기에는 노동(생산)이라는 한정된 목적이 있었던 만큼 전인격적 삶의 영위라는 향도의 확산적 성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구적 동기가 강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두레조직의 신뢰는 초기에 전인격적, 무조건적 성격이 지배적이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점차 조건적, 제도적 성격이 확대되어 갔다. 두레는 일상생활 전반의 조직이기보다는 수전노동이라는 특정 영역에서 움직여졌던 조직이고, 더구나 조선 후기 들어 체계성과 효율성을 더해간 조직이었다. 주목할 사항은 명시적 목적을 겨냥한 공동노동이 체계적 조직 차원에서 반복될 때, 거기에는 일상의 신뢰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신뢰 관계와 형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조직적 공동노동의 과정을 통해 지도력, 숙련도, 물리력 등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는 분명 일상의 전인격적 신뢰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앞서 주커의 분류를 따르다면 ‘귀속성’보다는 ‘과정’에 기반 한 신뢰로 볼 수 있다.<sup>49)</sup> 이 신뢰의 성격 변화에서 우리는 두레가 자신의 모태였던 향도적 속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오히려 계의 성격에 근접해가는 중요한 계기를 발견한다. 그 계기란 단연 기능성과 분화된 목적의 부상이다.

종합해보건대 두레는 향도의 공동체성을 계승하면서도 목적지향적 결사체로서의 성격 역시 다른 한편으로 잠재하고 있었다. 앞서의 구분을 통해 볼 때, 두레의 성격 속에 ‘교량적’ 측면과 ‘결속적’ 측면, ‘제도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 ‘구조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이 양립하고 있었으며 그 중 후자가 상대적 견지에서 우세했

---

49) Zucker, *ibid.*, p. 53.

던 것으로 이해된다. 공동체와 결사체의 성격이 중첩된 두레의 성격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의 산물이었다. 자연촌의 분화와 발전에 따른 조직성과 체계성의 확대, 생산력 발전에 따른 잉여와 이익 개념의 출현 등이 두레의 이중성을 결과한 주요한 배경이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된 이 흐름 속에서 두레는 애초의 자연발생적 사회자본에서 점차 의도적이고 제도적인 사회자본으로 변화해갔다. 두레는 분석적 유형으로 볼 때 그 과도적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 3. 계(契)

#### 1) 계의 구조와 성격

계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든 비교적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모임(단체)이다.<sup>50)</sup> 계의 기원은 향도를 위시하여 고려시대나 삼국시대까지도 소급될 수 있겠으나, 본격 확산되는 시기는 아무래도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이다. 계는 향도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전래의 농민조직에 시원적으로 잠재해 있던 결사적 전통이 공동체적 조건이 이완되기 시작한 조선 후기의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계는 향도나 두레와는 달리 무엇보다 종류 및 참여 주체가 세분화되고 다양화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자연히 계의 구조와 성격 역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었다. 가령 계의 변이는 인격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 공동체적 성격에서부터 한정된 분야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리적 성격에까지 폭넓게 분포해 있었다.

계의 다양한 양상은 17, 18세기에 급속히 진전된 농업생산력과 사회 분업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된 신분제 이완에 따라 향촌의 구조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편되어 가는 변화의 산물이었다. 우선 지배층인 사족들은 기존의 ‘동계’와 함께 혈연적 결속을 강조한 ‘족계(族契)’나 ‘종계(宗契)’를 발달시킴으로써 변화된 조건에 적응해 나가고자 하였다. 반면 농민들은 기존의 공동체적 향도 전통을 계승한 촌계류 조직을 발전시켰다. 촌계류 조직은 자연촌을 모태로 하여 산천제의 등 농경의례, 동린적 상호부조, 마을 단위의 공동노역을 담당함으로써 앞선 시대의 향도가 했던

---

50) 김필동, 앞의 논문, 97쪽

역할을 물려받고 있다.<sup>51)</sup> 하지만 촌계류의 현실성과 대표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아무래도 주된 관심은 신분제의 이완 속에서 사족과 농민영역에 두루 걸쳐 있던 다양한 ‘목적계’가 아닐 수 없다.<sup>52)</sup> 목적계야말로 조선 후기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회조직으로서 계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선 후기 계의 종류와 성격을 아래와 같이 유형적으로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 가) 신분유지와 자체 결속을 위한 사족 주체의 계: 동계, 족계, 종계
- 나) 공동체적 상호부조를 위한 농민 주체의 계 촌계류
- 다)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하민 신분에 상관없이 조직된 계

그리고 다)의 목적계는 다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갈라진다.<sup>53)</sup>

- ① 喪契(상사처리), 學契(서당운영), 松契(산림수호 및 관리)
- ② 軍布契, 戶布契, 補民契(공동 응세)

51) 촌계라는 용어는 ‘향촌결계(鄉村結契)’의 준말로써 향촌 사족들의 동계조직과 구분되는 기층 농민들의 생활공동체 조직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해준, 앞의 논문 참조 하지만 촌계는 그러한 명칭이 원래 있었다거나 실제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었는지가 현재로선 다소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용어의 사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김필동, 『차별과 연대 조선사회의 신분과 조직』(문학과지성사, 1999), 379쪽. 특히 지금의 맥락과 관련해볼 때 그것이 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의미의 공동체조직을 뜻한다면 굳이 그것을 계의 일 유형으로 포함시킬 근거가 박약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지만, 관련된 김용덕의 지적만은 기억할 만 하다. 그는 촌계가 실상 향도적 전통 하의 촌회(村會)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계라는 용어를 씀으로서 조선 후기의 여러 목적계 가운데 하나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용덕, 앞의 논문, 41쪽

52) 신분제가 해체되어 가던 조선 후기의 상황에서 계를 명시적인 사족조직 혹은 농민조직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물론 주체가 분명하고 신분적 경계가 명확한 계도 없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계는 신분적 결속보다는 특정한 이익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실상 양 세력 모두에 걸쳐 있었다. 애초에 사족 주체의 계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신분제의 해체에 따라 경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학계(學契)는 원래 양반 문중의 자체를 대상으로 서당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나 조선 말기로 가면서 촌락의 상하민이 공동으로 학계를 만드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김필동, 「계의 역사적 분화, 발전과정에 관한 시론: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조직과 종교사상』(문학과지성사, 1990), 67~69쪽

53) 김필동, 위의 논문(1990), 66~73쪽, 이영훈, 앞의 논문 248쪽

- ③ 貢契, 客主契, 보부상계(특권적 상인조합)
- ④ 殖利契, 작박계, 萬人契(식리활동 및 투기)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 형태를 띤다. 특히 계는 앞선 조직들과는 달리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계 기금은 초기에는 곡물, 면포, 상구(喪具) 등 현물이 주를 이루었지만, 화폐경제가 확산된 후기로 갈수록 현금으로 일원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sup>54)</sup>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계는 계원들의 상호 출자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수단으로 특정의 목적과 이익을 조직적 차원에서 달성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계 운용의 수단이었던 현금이 오히려 계의 목적이 되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식리활동 자체가 계의 목적으로 전이된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④의 유형이다. 이렇듯 화폐의 확충 자체가 목적이거나 화폐를 매개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계의 속성은 계에 내재된 경제적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화폐경제의 확산이 이미 그렇듯 계의 분화와 확산은 당대의 상황이 공동체 원리를 넘어 새로운 ‘이익’ 원리에 의해 작동되기 시작했음을 대변해준다. 의도적 결사조직인 계는 이 조건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조직의 맹아적 대표격이다.

물론 농경을 근간으로 한 전통사회에서 어떠한 조직도 전래의 공동체성을 완전히 탈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석적 견지에서 볼 때, 계는 향도나 두레와는 달리 특정화된 목적, 선택적, 의도적 가입, 평등한 성원자격이라는 면에서 결사체에 매우 근접하였다. 향도의 공동체 전통이 남아있던 촌계류 조직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목적계는 개인의 의지가 조직 가입에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하였다. 초기에 신분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역시 19세기 이후로 유명무실해졌다. 계가 평등과 자율의 원리에 기초하였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동리의 신참자가 계에 가입할 때 예납전(例納錢)을 내어야 했던 관행은 계의 경제결사적 성격을 새삼 확인케 한다.<sup>55)</sup> 이러한 성격은 계의 조직구성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계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표부’, ‘집행부’, ‘사역인 使役人’ 3

54) 김필동, 위의 논문(1990), 76-77쪽

55) 김필동, 「조선 시대 말기의 계의 변모」, 『한국 고·중세사회의 구조와 변동』(문화과학사, 1988), 133쪽.

계층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이 중 ‘계장(契長)’을 중심으로 한 대표부와 여러 사역 인들도 중요했지만, 특별히 집행부의 역할이 긴요하였다. 계 조직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집행부 중심의 조직이라는 점인데, 이는 ‘유사(有司)’로 불리는 집행부가 계 조직의 운영,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데 기인한다.<sup>56)</sup> 흥미로운 점은 유사의 업무를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계원들이 교대로 맡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전의 조직과는 달리 계의 조직 구성이 공동체적 위계나 신분적 위계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음을 예증하고 있다.

## 2) 사회자본으로서의 계

계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그 연결망은 개인이 선택적으로 축적가능한 근대적 의미의 사회자본에 근접하였다.<sup>57)</sup> 향도, 두레가 공동체적 강제를 통해 연결망에 참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양자의 차이는 확연하였다. 물론 계에도 나)유형처럼 전래의 공동체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계의 전형이 아무래도 다)의 목적계에 있다고 할 때, 계의 연결망은 참여 여부가 특정의 목적 수행에 합의하는 개인의 선택에 크게 좌우되었다. 목적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행과정이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때, 참여는 어렵지 않게 철회될 수 있었다

이처럼 계 연결망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조건적이었다. 또한 계의 연결망은 근대적 결사에 부합할 만큼 체계성을 띄었고, 기본적으로 공식적, 제도적 성격을 견지하고 있었다. 계 조직원의 상호관계는 객관화된 규칙이나 제도를 매개로 한 형식적 성격이 짙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계의 속성을 감안할 때, 당연히 연결망은 자연적 경계에 묶여 있지 않았다. 물론 현실적 제약 상 자연촌의 면접 관계가 연결망 성립의 출발점은 될지언정 기능적 목적 수행에 부합하는 한 자연촌의 경계가 연결망 참여의 제약요인이 될 수는 없었다. 계 연결망의 본질은 일상적 교류나 정

56) 김필동, 위의 논문(1988), 135-136쪽

57) 이 점에서 필자는 사회자본으로서 계 조직을 현대적 사회자본의 맹아적(시원적) 형태로 이해한다. 곧 계 조직의 구성과 원리가 현대의 지평으로 오면서 보다 완전하고 전형적인 근대적 형태로 성숙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때 ‘맹아 성숙’이라는 양자관계의 이해가 곧 구조적 조건에 따른 양자의 차이 혹은 변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근대적 조직 원리에 일정하게 수렴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일반적 경향성이다.

의성의 고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기능성의 충족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으로서 계의 규범은 기존의 집합의식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향도나 두레와 대별된다. 계를 지배했던 규범은 이익을 초월한 절대적 가치 즉 인륜이나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내용적 규범이 아니라 합의와 기능적 호혜성을 담보하려는 절차적 규범이었다. 당연히 계 규범의 효과는 구성원의 삶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특정의 목적 아래 기능적 역할 수행에 한정되었다. 여기에 공동체성을 주기적으로 각인시키는 종교적 의례의 필요성은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향도가 동제(洞祭)라는 의식체계를 동반했던 것과 뚜렷이 비교된다. 이런 중요한 성격변화를 감안할 때 계 규범의 원천을 전래의 예속이나 유교에서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조선 후기 생산력 발전과 사회 분화에 따른 유기적 이익원리가 계 규범의 원천이었다. 기존의 공동체 조직에서 억압 내지 잠재되어 있던 개별 이익의 실현이 계의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sup>58)</sup> 이 점에서 계 규범의 동기는 완성적이기보다는 도구적인데 가까웠다. 도구성에 입각한 계 규범의 절차적, 조건적 성격은 계가 가진 신뢰의 성격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계 조직의 신뢰 역시 기본적으로 조건적인 성격을 근간으로 했다. 계 조직의 신뢰는 자연적 공동체 생활이나 관습적 규범을 매개로 한 전인격적 신뢰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특화된 목적 수행과 그 평가로부터 형성되는 제한적, 조건적 신뢰이다. 이 신뢰는 개별 조직원이 의도한 바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철회되기 쉬웠다. 계의 신뢰는 그 내부의 제도, 예컨대 조직운영제도, 역할분담제도, 이익분배제도 등의 원활한 작동에 달려있는 문제였고, 결국 조직의 객관화된 제도와 운용에 결정적으로 의존해 있었다. 만약 조직 내부에서 ‘기회주의(opportunism)’적 행위가 빈발할 경우 계 조직의 신뢰수준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sup>59)</sup> 저하된 신뢰는 공동체적 강제에 의해 복구되기보다는 합리적 절차에 의해 철회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계가 향도, 두레에 비해 뚜렷하게 제도화된 배경에는 사회분화 진전이라는 일반 요인과 함께 집합의식을 통해 신뢰의 배반을 징치할 수 있는 문화,

58) 여기서 말하는 개별 이익이 근대적 의미의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조선 후기에 강화된 혈연적 결집 추세를 반영하듯 계의 이익 단위는 개별호였다. 다시 말해 계를 통해 구속적인 혈연원리가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이 점에서 필자는 조선 후기의 계를 정확히 말해 일종의 의사(quasi)근대적 조직으로 이해한다.

59) Williamson, Oliver, *Markets and Hierarchies*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관습적 역량의 저하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 점에서 계 조직의 신뢰는 귀속성이나 과정적 측면보다는 제도 기반의 성격이 강하였다.<sup>60)</sup> 이념형적으로 조선 후기 계원은 상대를 주관적 차원에서 전인격적으로 신뢰했다기보다는 객관적 제도와 규약을 통해 상대를 신뢰하거나 혹은 신뢰를 철회하였다.

종합해보건대 계는 불교결사라는 향도의 시원적 성격을 우회적으로 계승하면서 동시에 두레에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결사체의 가능성을 뚜렷이 발현한 조직이었다. 앞서 사회자본의 구분을 통해 보면, 계는 우선 ‘결속적 사회자본’보다는 ‘교량적’ 사회자본으로 유형화된다. 계의 목적이 상호부조를 통한 공동체적 결속이 아니라 특정의 이익 실현에 있었기에 계의 연결망 범위는 자연촌에 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복수의 자연촌을 가로지른 것이 계 연결망이었다. 따라서 연결망은 면접 관계를 넘어 익명의 관계로까지 확장될 여지가 다분하였고, 이는 계가 중요한 교량적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계는 ‘관계적’ 사회자본이기보다는 ‘제도적’ 사회자본이다. 계는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매개로 관계 자체의 강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매개로 특정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사체라는 계의 속성 자체가 공식적 제도 없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분명해진다. 끝으로 계는 ‘인지적’ 사회자본이기보다는 ‘구조적’ 사회자본이다. 계는 규범, 가치, 신념 등으로부터 강화되는 정신적 과정에 의해 성립 및 운영되기보다는 구조화된 제도나 공식적 규약에 의해 움직인다. 물론 계의 경우에도 정서적 일치, 동질성 확인, 유대 강화 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계의 본질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계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농민조직 가운데 적극적인 의미의 ‘이익’ 지향의 조직이었으며, 아울러 근대에 가장 근접한 제도적이며 공식적인 사회자본이었다.

#### IV. 전통사회 농민적 사회자본의 기능

##### 1. 농민적 사회자본의 경제적 기능

생산력이 절대적으로 낮았던 농경사회의 조건에서 삶은 곧 경제적 요구를 해결

60) Zucker, *ibid.*, p. 53.

하는 과정이었고, 여타 활동은 기껏해야 잔여 범주에 불과했다. 특히 피지배층 농민의 경우 삶의 경제적 압박은 일상의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이 시사하듯 농민적 사회자본의 기능은 최우선적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었다. 저열한 생산력과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자본으로서 농민조직이었다. 이 때 가장 대표적인 사회자본의 사례를 두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농경은 후기로 접어드는 17, 8세기를 기점으로 중요한 전환을 보인다. 개간으로 인한 경지 면적 증대, 이양법 보급, 쌀·보리 이모작의 확대, 윤작체계의 고도화, 시비법과 경법(耕法)의 개선, 농기구의 발달 등이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sup>61)</sup> 문제는 여기서 집중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요구되었고, 이는 개별호 단위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당시 소농경영이 일반적이었음을 고려할 때,<sup>62)</sup> 이러한 곤란은 농민 일반이 광범위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농민들은 개별호 차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농경의 문제를 마을 내 공동노동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집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두레조직의 참여는 다른 대안을 갖지 못한 농민의 입장에서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만약 선택이 가능하고 그 결과 적지 않은 불참자가 나와 공동노동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는 농민 모두의 공멸로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했다. 두레가 강한 공동체성과 함께 강제성을 유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레는 성인 장정의 강제적 참여를 통해 모두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경제적 공공재 생산의 주요 통로였다. 두레 연결망의 참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두레의 기능 자체가 몹시 절실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두레 연결망에 속함으로써 개별호가 소유하기 힘든 농우와 농기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차라리 부수적인 효과였다.<sup>63)</sup>

두레에 비하면 향도조직의 경제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향도의 성격이 두레에 비해 확산되어 있고 종합적인데 기인하는 것이지 향도에 경제적 기능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향도는 종합적 성격 탓에 두레에 비해

61) 문소정,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제도와 농촌사회의 변동』(문학과 지성사, 1992), 93-98 쪽

62) 이영훈, 앞의 논문

63) 이태진, 앞의 논문(1989), 25 쪽

경제적 기능이 덜 뚜렷해 보일 뿐이다. 예컨대 향도는 정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조직의 부분집합으로서 ‘소겨라’, ‘들계 와 같은 하위 노동조직을 동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64)</sup> 아니면 최소한 이들 노동조직과 연계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향도의 연결망 역시 다른 일상적 부조기능과 함께 생산과 관련된 경제적 기능을 적절히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것은 두레와 마찬가지로 사유에서 사실상 농민의 참여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실한 삶의 요구였다.

끝으로 계의 경우이다. 계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분화된 당대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었다. 계의 경제적 기능은 공동체적 결속과 강제보다는 이익을 고려하는 개별 농민들의 선택적 참여를 통해 유기적 방식으로 발휘되었다. 조선 후기의 조건은 이미 삶의 경제적 요구가 농업생산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어 있었다. 이전까지는 적어도 그러한 전면적 경제 지향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억압되어 있거나 순치되어 있었다. 경제적 요구의 적극적 전화는 사회분화와 생산력 발전에 따라 ‘이익’ 원리가 확산된 탓으로, 또 정치적 차원에서 전래의 공동체적 지배원리가 무너짐으로써 억압돼 있던 개별 이익 논리가 강화되어 나온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부합한 계는 당연히 경제적 목적 수행을 중요한 기능으로 했다

하지만 당대 농민의 입장에서 이 계 연결망의 참여가 마냥 느긋한 선택일 수만은 없었다. 역설적으로 계의 참여는 이전의 공동체적 강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결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공동체가 주는 최소한의 경제적 보험효과가 사라진 마당에 농민들은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적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했다. 그들은 오히려 가중된 삶의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결망에 참여하거나 연결망 자체를 만들어야만 했다. 이는 공동체 기반의 자연발생적 연결망으로 해결되던 문제가 이제는 종류를 달리 하는 자원적 연결망을 통해서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의 분화와 다양화는 연결망의 참여를 놓고 농민들에게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였다. 농민들은 필요에 따라 사족 주체의 계 연결망에 참여하거나,<sup>65)</sup> 아니면 순

64) 이태진, 앞의 논문(1989), 15~17 쪽

65) 농민과 사족이 함께 참여한 계 가운데 특별히 주목되는 계의 유형은 이른바 ‘이인계(二人契)’이다. 이인계는 주로 신분제가 무너지는 19 세기의 계 유형으로서 양반 1 인과 상민 혹은 노비 1 인의 결계로 이루어졌다. 이영훈, 앞의 논문 277~281 쪽 이인계에서 상민은 양반에게 노동이나 기타 노력봉사를 제공하고 대신 양반은 상민에게 일정한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거나 기타 다른

수 농민 주체의 계 연결망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건 연결망의 우선적 기능은 아무래도 경제적 필요의 충족에 있었다. 계의 경우 부수적인 여타 사회자본의 효과는 경제적 기능에 비해 주변적일 수밖에 없었다.

## 2. 농민적 사회자본의 정치적 기능

농민적 사회자본의 정치적 기능은 앞서 II장에서 소개한 사족 지배구조의 성격 및 시기별 변화와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배의 성격 변화에 따라 농민조직의 성격과 대응 역시 함수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술했듯이 조선 중기 사족의 지배구조는 향촌의 자율성을 인정한 가운데 중앙과 향촌이 유기적으로 분화된 조율적 양상을 전형으로 했다. 양자가 상호 교류하는 가운데 향촌에서는 교화를 기치로 한 사족들이 일정한 자기규제의 틀 위에서 ‘협의체적 명망가 지배’를 실현하고 있었다. 사족 상호간의 규제에 입각한 이 지배는 농민들로부터 일정한 해계모니를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부분적인 일탈은 없지 않았지만, 대체로 적나라한 농민수탈이나 유린은 제어될 수 있었다. 당대의 향촌 지배는 상대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었고, 이는 적어도 해당 시기에 사족의 해계모니에 농민들이 일정하게 설득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sup>66)</sup>

반면 조선 후기의 지배 양상은 이로부터 크게 변질된다. 자연촌을 행정적 체계로 편입하려는 국가의 중앙집권 기획 과정에서 향촌의 자치성은 상당 부분 부정된다. 더 큰 문제는 국가중심의 집권화 기획이 노론 일당독재와 연이은 벌벌정치로 인해 파행화했다는 점이다. 권력을 독점한 이들 세력의 기획은 보편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채 제어되지 않은 당파적, 혈연적 이익 실현으로 변질된다. 중앙과 향촌의 유기적 대류구조는 거의 단절되었고, 향촌은 자치권을 상실한 채 일방적으로 중앙으로의 복속을 강요당했다.

향촌 사족 입장에서 이는 지위 유지 및 재생산의 위기였고, 그들은 혈연적 결속을 통해 기득권의 방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사족의 자기규제 원리는 사실상 유

---

양반가나 관청과의 문제에 자신의 권위를 빌려주는 등 경제외적 급부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계의 구성과 참여는 당연히 이익을 겨냥한 쌍방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다.

66) 전상인, 「양반과 부르조아」, 『한국과 국제정치』 14 권 1호(1998).

명무실해였고, 그 결과 지배의 공공성 역시 급격히 형해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농민에 대한 착취는 일상화하고 노골화한다. 더욱이 국가와 혈연집단의 이중적 착취가 농민들을 괴롭혔다. 잘 알려진 것처럼 조선 후기에 들어 빈발한 농민봉기는 이러한 조건변화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결국 공동체성과 사족 헤게모니가 상실된 상태에서 농민들 역시 이에 상응하는 자구적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보다 체계화된 농민조직의 구축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배경을 토대로 농민조직의 정치적 기능을 검토해보자. 우선 농민조직의 정치적 기능은 두 가지로 유형화된다. 첫째는 타협적·적응적 기능이다. 이는 향촌의 공동체성이 모순을 내부화하는 계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기존 질서 유지에 동참함으로써 보수적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투쟁적·개혁적 기능이다. 이 경우는 공동체성이 모순을 봉합하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투쟁의 원천이 된다. 이는 계급적·신분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변혁적 효과를 내재한다.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우선 향도의 정치적 기능은 전자, 곧 타협적·적응적 기능이 우세했던 것으로 유추된다. 향도 자체가 일상에 기반 한 종합적 성격의 조직인 탓에 정치적 실천을 위한 체계성이나 조직성은 아무래도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향도가 적극적인 투쟁의 기반이 되기에는 여러 모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향도조직이 조직적 반(反)지배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는 역사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며 그나마 향도에 관한 기록 대부분이 주로 일상적 상호부조 면에 할애되고 있는 것이 간접적 증거이다.

향도의 ‘적응적’ 정치 기능은 앞서 조선 중기의 지배층이 보여준 상대적 공공성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협의체적 명망가 지배’는 향촌 사족의 자기규제는 물론 직접적이고 지나친 농민수탈을 견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향촌 전체의 공동체성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이는 계급적 모순을 완화하거나 적어도 잠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결국 당대 사족의 일정한 헤게모니 하에서 향도조직은 투쟁적 정치기능보다는 적응적 정치기능을 보다 뚜렷이 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두레는 정치적 기능 면에서 향도와 확연히 구별된다. 동일한 공동체조직이라 하더라도 두레가 확산되었던 조선 후기의 지배 상황은 향도와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의 향촌은 공공적 지배들이 와해된 결과 혈연적 결집을 매개로 한 사족의 자의적 지배가 강화되고 있었다. 또한 국가로부터 부과된 마을 단위 공

공동납 방식은 농민들의 조세부담을 배가시켜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다. 사족의 혈연적 지배와 국가의 수조방식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삶을 압박함으로써 잠재해 있던 계급모순을 강화하고 증폭시켰다. 수탈과 혼란의 맥락 위에서 당연히 두레의 정치적 기능은 향도와 같을 수 없었다. 조선 후기의 두레조직이 농민적 정치투쟁의 주요한 매개가 되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다.

두레조직의 특성 중 공동노동 과정에서 형성된 엄격한 위계와 규율, 정연한 역할분담체계, 고도의 조직성은 두레가 가진 ‘투쟁적 정치기능의 훌륭한 기반이었다.’<sup>67)</sup> 또한 애초에 사족 배제의 순수 농민조직이라는 두레의 정체성은 계급모순에 보다 민감하기 마련이었고, 당연히 이에 대처하는 투쟁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었다. 실제로 당대의 생산력 발전은 두레 조직의 경제력을 향상시킨바 두레는 점차 독자적 조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sup>68)</sup> 두레조직이 조선 후기 농민의 반지배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그런 점에서 두레가 한말 일제 침략기에 반봉건, 반외세 투쟁의 교두보가 된 것은 두레가 갖고 있던 정치적 기능의 적극적 확장으로 볼 수 있다. 농민들은 두레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일정 수준 그들의 정치적 이해를 표출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인적·물적 자원동원을 할 수 있었다. 요컨대 두레조직은 상대적으로 정치성이 가장 짙은 조선 후기 농민의 사회자본이었다.

한편 계의 정치적 기능은 두레와는 달리, 그리고 향도와는 또 다른 이유에서 사실상 미약하였다. 이는 계가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농민의 집합적 이익을 실현코자 한 조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계는 개별적 선택을 통해 제한된 특정의 목적을 지향한 조직이었다. 물론 목적계가 아닌 촌계류 조직은 실제 두레와 유사한 정치적 기능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는 이미 밝혔듯이 계의 전형이 아니라 오히려 향도적 조직에 가까웠다. 따라서 그 기능을 계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군포계, ‘호포계, ‘보민계’ 등 공동 응세를 위한 목적계의 기능이다. 이들 계는 조선 후기 조세의 공동납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사조직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후기로 갈수록 공동납 방식은 여러 가지 폐해와 부작용을 낳으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자극하였다.

67) 주장현, 앞의 논문(1988), 201 쪽

68) 이태진, 앞의 논문(1989), 23 쪽

바로 이 대목에서 응세를 위한 특정의 목적계는 항조(抗租)의 주요한 매체로 역할 하기도 하였다.<sup>69)</sup> 여기서 우리는 계의 정치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 V. 농민적 사회자본의 함의: 결론에 대신하여

조선시기 농민조직은 정치·경제적 자원을 거의 갖지 못한 농민의 입장에서 생존을 담보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사회자본이었다. 향도, 두레, 계 조직은 모두 정도와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대 농민들에게 절실하고도 유용한 사회자본이었다. 그들에게 농민조직의 연결망은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였다. 하지만 이들 농민조직 역시 시대의 조건에 따라 상이한 특질을 발현하기 마련이었다. 조선 전·중기의 향도, 조선 후기의 두레·계가 각각 시대적 대표성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근세와 이어지는 조선 후기를 기준으로 할 때, 농민적 사회자본은 크게 ‘두레적 전통’과 ‘계의 전통’으로 양분해볼 수 있다. 이념형적으로 전자가 공동체 연결망, 집합의식적 규범, 전인격적 신뢰로 집약되는 전통이라면, 후자는 결사체 연결망, 유기적 규범, 계약적 신뢰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이다. 양자는 앞선 시대의 향도로부터 분화되어 나온 조선 후기의 산물이었지만, 이념형적으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후자는 보다 근대적인 삶의 방식과 관계원리를 내재한 ‘근대 여명기’의 맹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의 현실은 실상 이들 두 전통이 병존해 있거나 혼재해 있었다는 데 있다. 현실적으로 양 전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호 침투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 두 조직(전통)을 이어주는 접점의 문제에 주목하게 된다. 그 접점이란 바로 ‘혈연적 결집’이었다.

혈연적 결집은 조선 중기의 헤게모니적 지배가 와해됨에 따라 새로이 강화된 조선 후기의 특징적 삶의 원리였다. 비록 그 원리가 사족의 혈연적 결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신분제가 해체되어가는 당대의 상황에서 농민들 역시 자구

69) 정승모, 앞의 논문, 53쪽

적 차원에서 혈연적 결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합리적 지배의 규칙(rule)이 와해된 상황에서 혈연집단은 사족과 농민을 막론하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자 생존의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이 혈연적 결집 추세는 두레와 계 전통에도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두레의 경우 전래의 공동체성을 견지하되 그 범위를 점차 혈연 단위로 축소시켜 갔다면, 계의 경우는 결사적 본질에도 불구하고 혈연적 연결망에 의존하는 경향이 다분해져 갔다. 그 결과는 혈연을 매개로 한 ‘공동체적 결사체’ 내지 ‘결사체적 공동체’로의 수렴이었다.

문제는 이 수렴된 전통이 당대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거시적 견지에서 이후 한국의 역사는 근대적 원리에 따라 혈연을 상대화하거나 예측 가능한 사회적 규칙을 정립하기보다는 조선 후기의 조건을 본질적으로 답습하는 것이었다. 이는 오늘날의 사회자본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현대의 사회자본 역시 많은 경우 이 수렴된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탓이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문제시되고 있는 (혈연적) ‘연고집단’의 기원을 이러한 견지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한국의 연고집단은 강한 공동체 지향성과 완성적 동기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내부 연결망을 통해 여러 가지 자원에 접근하는 도구주의적 성향을 함께 보인다. 본 연구의 맥락과 이어볼 때, 이는 두레·계의 수렴된 전통이 역사과정을 통해 변형 및 재적응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견지에서 전통사회의 사회자본은 단지 빛바랜 역사적 유물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사회자본의 전통은 역사적 경로를 통해 현재를 규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사실(social facts)’로 기능한다. 긍정, 부정을 떠나 전통사회의 사회자본이 현재적 의미를 가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김용덕, 「촌회와 향도」, 『역사민속학』 2집, 1992, 32~61 쪽  
 김용학·송호근, 『한국노동조합의 연결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8.  
 김인길, 「조선후기 촌락조직의 변모와 1862년 농민항쟁의 조직기반」, 『진단학보』 67집, 1989, 45~74 쪽.  
 김필동, 「삼국-고려시대의 향도와 계의 기원」, 『한국 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문학과학지성사

- 1986, 65~104쪽.
- 김필동, 「조선 시대 말기의 계의 변모」. 『한국 고·중세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 126~154쪽.
- 김필동, 「계의 역사적 분화, 발전과정에 관한 시론: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조직과 종교 사상』,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0, 54~88 쪽
- 김필동, 『차별과 연대: 조선사회의 신분과 조직』,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 문소정,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제도와 농촌사회의 변동』,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2, 89~122 쪽
- 박희봉·김명환,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34 집 4 호, 2000, 219~237 쪽
- 신용하, 「두레 공동체와 농약의 사회사」. 신용하(편), 『공동체이론』,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 오영교,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 연구』, 서울: 혜안 2001.
-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편역),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2003.
- 이영훈, 「18, 19세기 대저리의 신분구성과 자치질서」. 『맛질의 농민들』, 서울: 일조각, 2002.
- 이태진, 「17, 8세기 향도조직의 분화와 두레 발생」. 『진단학보』 67 집 1989, 1~30 쪽
- 이태진, 「사림과의 유향소 복립운동」. 『한국사회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4.
- 이해준, 「조선시대 향도와 촌계류 촌락조직」. 『역사민속학』 1집, 1991, 8~43쪽.
- 전상인, 「양반과 부르조아」. 『한국과 국제정치』 14 권 1호, 1998, 299~337 쪽
- 정승모,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변동과 농민조직」. 『역사민속학』 1 집, 1991, 44~57 쪽
- 정진영, 「조선 후기 동성마을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 21: 조선후기의 향촌사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1.
- 조혜인, 「조선향촌질서의 특징과 그 정착과정」. 『유교적 전통사회의 구조와 특성』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주강현, 「조선후기 변혁운동과 민중조직」. 『역사비평』 2 호, 1988, 185~211 쪽
- 주강현, 「두레의 조직적 성격과 운영방식」. 『역사민속학』 5 집 1996, 104~137 쪽
- 최우영, 「조선사회 지배구조의 기본 성격 관료적 지배와 잠재된 갈등」 『사회발전연구』 8 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2, 147~179 쪽
- 한상권, 「조선시기 국가의 지방지배 연구현황」. 『역사와현실』 18 집 1995, 225~252 쪽

Briggs, Xavier, "Doing Democracy Up Close: Culture, Power and Communication in Community Building."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Vol. 18, 1998,

pp. 1~13.

- Coleman, Jame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1988, pp. 94~121.
- Dasgupta, Partha. & Ismail Serageldin(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2000.
- Durkheim. Emile,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ranslated by George Simpson, New York: The Free Press, 1933.
- Krishna, Anirudh, "Creating and Harnessing Social Capital?."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ldin(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2000.
- Lin, Nan,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Maloney, William, Graham Smith & Gerry Stoker, "Social Capital and Urban Governance: Adding a More Contextualized 'Top down' Perspective." *Political Studies*, Vol. 48, No. 4, 2000, pp. 802~820.
- Portes, Alejandro,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998, pp. 1~24.
- Putnam, Robert,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 6, No. 1, 1995, pp. 65~78.
- Uphoff, Norman,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Learning from the Analysis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ldin(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2000.
- Williamson, Oliver, *Markets and Hierarchies*.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 Zucker, Lynne,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1986, pp. 53~111.

## 국문 요약

최근 사회자본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 연구의 시야는 대부분 현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회자본의 정체(identity)와 형성이 역사·문화적 맥락에 의존해 있음을 고려할 때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상기의 문제의식에 따라 전통사회인 조선에서 존재했던 주요 농민조직을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먼저 ‘향도’조직은 자연촌을 단위로 한 자연발생적 일상적 농민조직으로서 농민의 삶 전반에 종합적으로 관여한 공동체적 연결망이었다.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향도는 교량적 측면보다는 결속적 측면이, 제도적 측면보다는 관계적 측면이, 구조적 측면보다는 인지적 측면이 뚜렷이 부각되는 사회자본이었다. 두 번째 ‘두레’조직은 마찬가지로 자연촌을 단위로 하였지만, 수전노동이라는 특화된 목적과 거기에 걸맞는 청장년 남자들로 구성된 다분히 의도된 노동연결망이었다. 따라서 두레는 기본적인 공동체성에도 불구하고 일정 측면에서 결사체적 성격을 함께 보이는 농민조직이다. 사회자본으로서 두레는 앞선 두 범주 중 후자가 상대적 견지에서만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 세 번째 ‘계’조직은 농민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대적 형식에 가까운 결사체적 연결망이었다.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계는 향도나 두레와는 달리 교량적 측면, 제도적 측면, 구조적 측면이 보다 뚜렷이 부각되는 친(親)근대적 사회자본이었다. 이들 전통적 사회자본의 복합적 영향 아래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회자본이다.

● 투고일 : 2006. 1. 2.

● 심사완료일 : 2006. 3. 2.

● 주제어(keyword) : 사회자본(social capital), 전통사회(traditional society), 농민조직(peasant organization), 향도(Hyangdo), 두레(Dure), 계(Gye)